

# 7일 휴전 끝나자 마자...이스라엘, 가자 남부 공격 공식화

###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 "지상전 가자 전역 확대"

### 해외 체류 하마스 지도부 암살 암시 음성파일도 공개

한 달여간 이어진 지상전을 통해 가자지구 북부 지역 대부분을 점수한 이스라엘군이 3일(현지시간) 가자 남부지역 작전 실행을 공식화했다.

헤르즈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이날 이스라엘 남부지역 사단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스라엘군이 가자 남부지역에서 군사작전을 본격화했음을 확인했다.

그는 "어제와 오늘 우리는 하마스의 대대급, 중대급 지휘관과 많은 대원을 제거했다"며 "어제 아침 우리는 같은 가자지구 남부에서 같은 움직임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할레비 총장은 "그것(가자 남부 작전)은 (북부의 작전과 비교해) 덜 강력하지 않을 것이다. 하마스는 이스라엘군을 어디에서든 만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자지구 전체 인구 230만명의 70% 이상이 몰려 있는 것으로 알려진 남부에서도 강력한 공격을

이어가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는 이어 "우리는 가자지구 북부에서 했던 것과 같은 상황을 남부에서도 끝까지 이어갈 수 있으며, 실제 그렇게 하고 있다"며 "가자 남부에서 성과를 계속 심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스라엘군 수석대변인인 다니엘 하가리 소장은 "하마스를 대상으로 한 지상전을 가자지구 전역에서 확대하고 있다"면서 "이스라엘군은 테러범들과 대면해 그들을 제거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소셜미디어 등에는 이스라엘군 탱크가 가자 남부 지역, 특히 남부 최대 도시인 칸 유니스 북부에 진입한 영상이 돌았다. 하마스 측도 이 지역에서 이스라엘과 교전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24일부터 1일 오전까지 만 7일간 하마스와의 전쟁을 일시 중단했으며 이 기간 하마스는 하루에 10명씩 이스라엘인 인질을 석방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은 추가로 연장되지

못했고, 이스라엘군은 1일 오전부터 가자지구에서 군사작전을 재개했다.

한편, 이스라엘 정보기관 신베트가 해외에 체류 중인 하마스 지도부 제거 작전에 나설 것임을 암시하는 음성 파일도 이날 이스라엘 공영방송 칸(Kan)을 통해 공개됐다.

이 파일에는 로넨 바르 신베트 국장이 "각료회의가 하마스를 살해하라는 목표를 정했고, 우리는 그렇게 하기로 했다. 그것은 우리의 '뮌헨'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자지구, 서안, 레바논, 튀르키예, 카타르 전역에 있는 모두를"이라며 "몇년이 걸리겠지만, 우리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그곳에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르 국장이 언급한 '뮌헨'은 1972년 팔레스타인 무장 테러단체 검은 9월단 대원들이 뮌헨올림픽 선수촌 내 이스라엘 대표팀 숙소를 기습 점거한 사건을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이스라엘 대표팀 소속 선수와 코치, 심판 등 11명이 숨졌고, 이스라엘 정보기관은 이후 테러를 지시한 팔레스타인 지도자들을 표적 암살했다. /연합뉴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교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3일(현지시간) 가자지구 남부 라파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이 이스라엘의 공격에 따른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헤르즈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이날 이스라엘 남부 사단을 방문해 가자지구 남부 지역에서 군사작전을 본격화했다고 확인했다. /연합뉴스

## 중 수출통제 강조 美상무장관에 중관영지 일제히 "어리석은 행동"

지나 러문도 미국 상무부 장관이 중국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조하자 중국 당국 입장을 대변하는 관영매체가 "어리석은 행동"이라며 반발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 환구시보와 글로벌타임스는 4일 공동 사설에서 러문도 장관의 레이건 국방포럼 연설을 언급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신문은 "러문도 장관은 중국을 미국이 마주한 가장 '큰 위협'이라고 표현하고 '중국은 우리의 친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며 "연설 초점은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봉쇄 강화를 호소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러문도 장관이 수출 통제 관련 예산이 2억 달러에 불과하다고 말한 점을 언급한 뒤 "예산이 200억 달러 이상으로 늘리더라도 목표를 잘못 잡았기 때문에 헛수고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국 기업을 희생하면서 중국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라며 "미국이 '작은 물에 높은 담장'을 만들고 디커플링(공급망 등 분리)을 추구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비판했다.

신문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가 극심한 불안감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며 "이것은 미국이 직면한 잘못된 대외전략의 결과로,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러문도 장관은 2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열린 레이건 국방포럼에서 "중국은 매일 눈을 뜨면 우리의 수출통제를 우회할 방법을 찾으려 한다"며 중국 위협에 대응하려면 수출통제의 엄격한 집행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에펠탑 흥기 피습' 현장에 놓인 꽃다발 프랑스 파리 에펠탑 인근 울타리에 흥기 피습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꽃다발이 꽂혀 있다. 전날 오후 에펠탑 인근에서 과한 흥기를 휘둘러 독일 관광객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친 가운데 수사 당국은 용의자가 이슬람 극단주의에 빠져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쇼핑에 열렸던 지갑, 기부엔 닫혔다 美 추수감사절 '기빙 튜즈데이' 저조

### 기부 참여자 지난해보다 10%↓

미국에서 추수감사절(11월 네번째 목요일) 직후 화요일엔 나눔을 생각하자는 의미에서 '기빙 튜즈데이'(Giving Tuesday)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지만, 쇼핑과 달리 기부 지갑은 좀처럼 열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 문화 우리 속에서도 구매력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던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 사이버 먼데이와 달리 기빙 튜즈데이는 썰렁했다는 것이다.

자선운동 데이터 단체 '기빙 튜즈데이 데이터 커먼스'에 따르면 올해 기빙 튜즈데이 기부금은 작년보다 0.6% 증가한 31억달러(약 4조원), 참가자는 작년보다 10% 감소한 약 3400만명으로 집계됐다고 미 CNN 방송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기빙 튜즈데이는 미 뉴욕시 문화·커뮤니티 센터인 92Y와 유엔재단 주도로 추수감사절을 맞아 기부를 장려하기 위해 2012년 시작된 캠페인이다.

기빙 튜즈데이의 야사 커란은 보도자료에서 "기빙 튜즈데이의 목표는 당일뿐만 아니라 1년 내내 전세계 커뮤니티, 대의명분, 조직을 돕는 기부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지난해부터 이어진 기부 추세를 볼 때 참여가 줄어드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위축된 기부와 달리, 비슷한 기간 이어진 쇼핑 시즌에는 역대 가장 많은 소비자가 지갑을 연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소매협회(NRF)에 따르면 '사이버 위크'로 알려진 추수감사절(11월 23일)~사이버 먼데이(11월 27일) 5일간 미국 인구의 60%가 넘는 약 2억명이 온라인 쇼핑을 했다.

어도비의 마케팅 데이터 분석 솔루션 '어도비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추수감사절 직후 월요일인 사이버먼데이에 124억달러(약 16조원), 추수감사절 직후 금요일인 블랙 프라이데이엔 98억달러(약 12조8000억원)를 온라인 쇼핑에 썼다. 작년에 비해 각각 7.5%, 9.6% 증가한 수치다.

기부 감소는 이미 많은 자선단체가 겪는 현상이다. 지난 6월 '기빙 USA' 보고서를 보면 미국인들의 가처분 소득 대비 기부금 비율은 1995년 이후 가장 낮다.

2022년 미국인들의 가처분 소득 대비 기부금 비율은 1.7% 수준이었다. 기부금 액수는 전년보다 3.4% 감소한 4993억달러(약 650조원)였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기부금 감소 비율은 10.5%까지 늘어났다.

이같은 현상의 원인은 결국 경제 상황으로 설명된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40년 만에 가장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 5.25~5.5%까지 올렸다.

지난 1년간 물가상승률은 3.2%로, 작년 최고치인 9.1%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연준의 목표치 2.0%를 웃돈다. /연합뉴스

제안하면 거절하고!

발견하면 신고하고!

한사람의 보험비로  
전국민의 경제부담 줄이

# 보험사기 ZERO

-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처벌 사항**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신고 포상금**

**적발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

경찰청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IAA 한국보험대리점협회